

# 제주 아동학대 절반 이상 '집'에서 발생

## 내일 제12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 최근 3년간 269건... 가정 > 학교 > 어린이집 순 제주경찰, 아동학대 전담 수사관 배치해 대응

오는 27일 제12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앞둔 가운데 제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절반 이상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016년 74건, 2017년 99건, 2018년 96건 등 최근 3년간 269건에 이른다. 올해에도 3월 말 기준 28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3년간 검찰에 송치된 아동학

대 사건 269건을 장소별로 분석하면 161건(59.8%)이 가정 내에서 발생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교 18건, 어린이집 13건, 유치원 1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제주에서는 의붓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A(36)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의붓 아들인 B(5)군을 지난해 11월 29일 가정 내에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머리 부근에 충격을 가해 4cm 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다음 날 병원 진료에서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는 김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화상을 입혀 결국 같은달 26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수사관을 배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당 수사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수사, 피해자 지원,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영옥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의 심리 상담·치료 및 보호조치, 가해자 분리·조사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12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아 제주시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아동학대 추방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 추도 묵념이 진행되며, 아동학대 전문가 최성에 HD연구소장이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지는 감정코칭'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이뤄진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전·현직 공무원 예산전용 의혹 보강 수사

### 검찰 "수사통해 재판여부 결정"

개인적 민원 해결을 위해 혈세를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진행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 현직 국장 A씨에 대한 보강 수사 지휘를 경찰에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배수로 정비를 부당한 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 B씨와 A씨의 지시를 받고 배수로 공사를 벌인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C씨, D씨, E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로부터 배수로 정비 부탁을 받고 C씨에게 검토를 지시했으며, C씨는 이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1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동지역 리조트 앞에 폭 0.5m·길이 115m 가량의 우수관 설치 사업을 벌였다. 당초 이 1억원은 성산을 온평리 배수로 정비를 위한 예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 어렵고 과거에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며 "이번 보강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3명 사상자 낸 제주UTD 이창민 선수 기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이창민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이창민 선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창민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8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가다 마주오던 이모(52·여)씨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흥모(69·여)씨가 크게 다쳐 119

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모닝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등 2명도 전치 8~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이창민 선수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창민 선수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과속과, 중앙선 침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며 "교통사고는 통상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 "이번 주말 쌀쌀해요" 기온 평년보다 낮아

이번 주말 제주도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6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며 "27일 역시 구름 많겠으며, 북동부와 산지는 새벽에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하겠다. 26일은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돼 아침 기온 11~13℃, 낮 기온 14~19℃로 전날인 25일보다 2~4℃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27일에도 최저 12℃에서 최고 15℃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해상에서는 26일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9~14%로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낮까지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도 많겠다. 송은범기자



꽃망울 터트린 새우란 24일 서귀포시 성산을 제주자연생태공원 내 공대역오름에서 새우란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렸다. 강희만기자

## 마약류 '카트' 성분 검출 예멘인 4명 기소유예

### 제주지검 "위법성 인식 미약·1회성 그친 점 고려"

지난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마약 성분이 검출된 4명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고, 이후 7~8

월에 진행된 소변을 통한 마약 반증 검사에서 마약류 '카트(Khat)' 성분이 검출됐다. 카트는 항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친은 유사체'의 원료인 '카틴'과 '카티는'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며, 예멘에서는 법적 제재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이들이 한국에서 카트를 섭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체내 잔류 기간이

1주일 내외인 점으로 미뤄보면 제주에서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카트 섭취가 1회성으로 그친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점, 압수수색에서 카트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은 모두 난민심사에서 탈락했고 인도적 체류 허가도 받지 못했다. 이에 현재 제주에 체류하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범기자

## 고교 '알바신고센터' 확대 8곳 추가돼 28개교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추진 외에 '알바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0개 고등학교에 운영됐던 '알바신고센터'는 올해 8곳이 추가돼 28개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권보호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조·총례 시 또는 관련 교과시간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고교에서는 1년에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도립미술관 학예연구과장 내달 1~3일 응시원서 접수

제주도는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과장을 전국 공모한다. 일반임기제 5급 상당의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선발되는 학예연구과장은 도립미술관 학예연구과 업무 총괄과 제주비엔날레 추진 등을 맡는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학에서 자격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춘 사람 등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10-6223, 710-426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공기청정기

도내 최저가

AMSM993-IWK 99㎡(30평)  
~~699,000원~~  
**639,000원**

ATXH763-IWK 76.0㎡(23평)  
~~599,000원~~  
**539,000원**

AZBE380-IWK 39.6㎡(12평)  
~~269,000원~~  
**239,000원**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0**

